

Vol. 205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5

02



신한 대학

- 맞춤형 학생역량관리시스템 MYCA+
- 신한가족이라면 '건강UP ↑'
- "기자가 직접 체험해봅니다"
신한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 신한외 북킹(Booking)을 찾아라!
- 무한한 잠재력을 만개해 세계로 도약하다,
신한대학교 국제대학

- 신한인으로 나아갈 특별한 첫 페이지
- 신한대 깃발 아래 올해도 어김없이 "압",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어버이날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불어넣은, 'Oh Happy Day!'
- 더위마저 잊게한 신한인의 'ENERGY'
- 가을 운동회의 꽃, 신한대체전[SSL]

비기독교인이 함께하는 기독교 축제, D.MZ 어노인팅 평화 축제 / Culture 서평

강소대학

젊고 강한 대학

Young and Strong University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학교가 말하는 '젊고 강한 대학, Young and Strong University'의 많은 이야기를 독특 튀는 로고와 커다란 말풍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홍장강** 성중,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06
- 발행일 2025.02.18 · 편집주간 **변희진** 교수 · 신문사장 **이종탁**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구원지** 기자 / **이민주**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031 870 3406 · 정가 8,000원

Contents

- 01_US.KOREA.SOL.10010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4_편집장 논설
- 06_2024년 신한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 08_2024년 동아리 박람회
- 10_제3회 신한대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14_아만다 행사
- 16_'Oh Happy Day' 어버이날 행사
- 18_2024 신한대축제 [ENERGY]
- 24_임시(논술, 자율전공)
- 26_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식
- 28_체육대회 [SSL]
- 30_학술제+아시아 [SYNERGY]
- 34_마이카플러스 오픈
- 36_건강관리프로그램(교직원, 교수 대상)
- 38_D.MZ 어노인팅 축제
- 42_학생 체험형 기획기사
(직무 아카데미, 런업, 노마드 등)
- 46_중앙도서관 독서골든벨
- 48_국제대학 소개
- 50_유학생 추석 축제
- 52_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영화제
- 54_유학생의 밤
- 56_[영화] 파수꾼
- 58_[영화] 댓글부대
- 60_[도서] 나와 세계
- 62_[전시] 헬로키티 50주년 전시회
- 64_이모저모
- 68_기부금 현황
- 70_편집후기
- 72_여백 및 홍보실 자료

1972 - 2022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0개국 10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23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0/100]	100개국 10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불확실 불꽃 불확실

“불확실 속에서 피어나는 불꽃”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허나 불확실성은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확실치 못하기에 도출해 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가능성을 포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나침반을 따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번 205호는 변화하는 입시제도부터 중앙도서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등,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신한대학교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도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편집장 이민주, 구현지

‘신한인으로 나아갈 특별한 첫 페이지’

전국 2위 경쟁률 뚫고 입학한 신한 새내기 맞이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치열했던 경쟁을 거치고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된 신입생들을 위한 신한대학교의 첫 행사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새내기들을 환영하며 본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양재원 수습기자〉

‘신한인’에 가까워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2월 21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하게도 신한대학교는 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여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대학 생활 적응을 통한 학우 만들기, 학업 의욕 향상과 자아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자신을 개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인’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었다.

본 행사에서는 수강 신청, 장학금 신청 등 대학 생활의 필수 내용 같은 중요한 정보 제공을 신입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하였다. 단체로 진행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단과대학 별 대학 생활 팁과 학생자치단체, 학과 자치기구, 학과 동아리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받았다. 또한 각 학과(부) 별 소개 시간을 가져 학과의 커리큘럼과 교육목표에 관해 소개받으며 신입생들은 앞으로 대학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하 공연과 특별 강연도 이루어졌다. 축하 공연에는 가상현실 체험기술인 VR을 예술에 접목한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염동균 작가가 자리를 함께했다. 염 작가는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신입생 슬로건을 그리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드로잉 공연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별 강연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청년의 인생관과 리더십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뒤이어 신입생들의 마음을 한층 더 설레게 한 것은 학과 별 장기자랑과 재학생들의 동아리 공연 및 학과 공연, 그리고 연예인 초청공연이었다. 장기자랑 공연을 통해 신입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동아리와 학과의 축하공연으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행사 첫째 날에는 ‘비비지(VIVIZ), 둘째 날에는 ‘권은비’의 공연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밤은 넘치는 열정으로 가득 찬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다.

202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더욱 활기찬 학업과,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 모두가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기획단을 포함한 학생자치단체는 “신한대학교 새내기들의 첫 발걸음의 발판이 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전했다. 폭설이 내리는 환경 속에서도 안전과 통제에 큰 노력을 기울여 2024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기쁨 속에 마무리됐다.

신한인으로서의 진정한 시작점, ‘신입생 입학식’

2024학년도 입학식은 3월 4일 오전 11시 의정부 제1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신한인의 정원은 수시 전형 신입생 1,208명과 정시 전형 신입생 302명으로 총 1,510명이다. 수시 전형 지원 인원은 무려 1만 2,962명으로 10.73 대 1이라는 평균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시 전형에서는 2,90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9.61 대 1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경쟁률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한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본 행사는 1부 입학식, 2부 축하 공연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 하나 로고스 봉사단 부단장 · 권순환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입학식은 슈퍼스타 · 기수단 입장△개식선 연△국민의례△애국가 제창△내빈 소개△성경봉독 · 기도△입학허가 선언△우수 입학생 장학증서 수여△환영사△축전 영상 메시지△교과 제창△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성종 총장과 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내·외빈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환영과 축하를 전했다. 신입생 전체 수석 합격자인 간호학과 장혜원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본인 외 1,509명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를 받았다. 강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동시에 신한 새내기들의 대학생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학과 별로 수시와 정시에서 수석과 차석을 한 우수 입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기도 하였다. 이후, 2부 행사에서는 k-pop학과 학생들과 태권도 학부의 힘찬 축하 공연으로 신입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폐식 선언을 끝으로 입학식이 성료되었다.



2024 동아리 박람회 개최

‘동아리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

...

의미있는 학교생활, 그리고 주어지는 성장 기회

〈구현지 기자〉

향긋한 봄 내음과 함께 저마다의 설렘으로 가득 찬 3월, 신한대학교는 2024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매년 학기 초에 시작되는 ‘동아리 박람회’는 중앙동아리를 필두로 교내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각 동아리만의 특색을 살려 홍보하는 행사이다.

매년 돌아오는 정례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동아리 박람회는 대학 동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새내기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부스에 참여하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열띤 참여는 동아리 박람회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3월 6일, 7일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동아리는 ‘로타랙트’, ‘아람사진연구회’ 등 10여 개의 동아리가 자리했다.

봉사 동아리 ‘로타랙트’는 경로당 배식 봉사, 복지관 환경미화 봉사, 유기견 봉사 등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로, 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진 동아리 ‘아람사진연구회’는 사진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2023년에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하여 가장 우수한 사진을 투표하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축구 동아리 ‘치얼스’의 특색을 살린 ‘슛 때리기’ 부스는 많은 학생들의 승부욕을 자극하였으며, 순위를 매겨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마이버디, CCC, SNS, 약당, 법, 흥, 소리패 등은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며 동아리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단순한 홍보에서 더 나아가 재학생이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동아리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냈다. 동아리 박람회의 즐길 거리는 부스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후에 시작된 힙합 동아리 약당, 음악동아리 소리패, 댄스동아리 흥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느새 버스킹 무대 주변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으며, 환호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학생에게 동아리는 학교생활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리더십과 책임감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학업으로 인해 지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은 사회 진출 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동아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이로써 더욱 활발해질 자치활동을 기대해 본다.





신한대 깃발 아래 올해도 어김없이 “압”

제3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대한태권도 협회 승인 ... 입상자는 대학 진학 특전

< 최지원 기자 >

태권도 신흥 명문인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올해 3회째를 맞아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은 '제3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회 종목은 겨루기, 격파, 품새 3종목으로 나뉘어 겨루기 종목은 4월 12일 ~ 4월 15일, 품새 종목은 4월 19일 ~ 4월 21일, 격파 종목은 4월 26일 ~ 4월 29일 순으로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체육관에서 3주간 진행되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제2회 태권도대회에서는 성대한 개회식과 동시에 '명예박사 및 학장 학위 수여식'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경기에 우선해 집중하는 효율적인 진행 방식을 선보여 이전 대회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자유 품새 복식전'과 '단체전'이 대한태권도협회의 공식 인정 종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해당 종목 입상자는 실적을 인정받아 대학 진학의 특전이 주어진다.

신한대학교 태권도·체육대학의 학장 및 태권도교육연구원 최상진 원장은 한미태권도연맹과 협약을 진행하며 태권도학과 재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태권도대회 준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최 학장은 “선수과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대회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다행히 선수과 지도자, 임원 모두 만족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미래 태권도 인재를 위해 추진력을 높여 신한대학교 태권도대회가 차원이 다른 대회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경기장 안에서는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진행요원들이 배치되어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등이 불편함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장을 찾은 선수 및 관계자들은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부터 대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단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진행요원들이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에서 다른 태권도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에 많이 놀랐다.”며 다른 대회와 차별화된 신한대학교만의 매력을 느끼며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먼저 개최된 겨루기 부문은 선수들의 뛰어난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난타전 끝에, 겨루기 남자 고등부 종합우승은 전북체육고등학교, 준우승 한성고등학교, 3위는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수상하였다. 이어 여자 고등부 종합우승은 문학정보고등학교, 준우승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3위는 영송고등학교가 수상하였다. 겨루기 부문은 일정보다 경기 시간을 단축시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두 번째로 나흘간 치러진 품새 종목은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개인전과 단체전, 복식전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경기장을 압도하며 절도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겨루기 부문과 마찬가지로 결승에 도달하자 긴장감이 고조되며 각 학교의 큰 박수 소리와 응원법으로 선수들의 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에 힘입어 더욱 힘 있는 동작들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품새 부문 종합우승은 한국나사렛대, 종합 준우승은 신한대, 종합 3위는 도복소리태권도장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격파 종목은 체공도약격파, 수직회전격파, 수평회전격파, 종합격파 등으로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높은 위치에 격파물을 두고 추진력과 순발력을 보여주며 경기에 임했다.

태권도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행사인 이번 제3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는 4월 29일 격파 대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주 간의 대회 기간 동안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는 선수들이 땀 흘려 노력한 열정적인 흔적의 결과와 열띤 환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선수들이 원동력을 얻고 미래의 태권도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만우절을 만끽하는 신한대 청년들

24학년도 '아쉽다 만우절 다시 한 번'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신혜미 기자〉

봄의 정취로 캠퍼스가 푸르게 물들어갈 때쯤, 중간고사로 지쳐가던 신한인을 위한 만우절 기념 행사가 열렸다. 만우절의 취지를 반영하여, 예고 없이 깜짝 이벤트로 준비된 '아쉽다 만우절 다시 한번' 행사는 3대 총학생회 때부터 매년 이어져온 행사로써 올해 역시 진행되었으며, 신한대학교 전통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벨엘관 앞과 동두천 캠퍼스 베데스다관 뒤편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5월 1일 하루 시간대에 편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아만다'는 본교 학생들이 교복, 전투복, 약세서리 등의 일일 코스튬 복장으로 한데 어울려 노는 행사다. 캠퍼스 내에서 대학생이 아닌 것처럼 치장하고 활보하고 다니는 청년들의 입가엔 장난기가 가득했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모두가 단합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더 뜨거웠기에, 더운지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노는 분위기 속에서 정열의 에너지가 느껴져 왔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객체가 되어 행사를 만끽하기도 하며 학우애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만다 행사를 맞이하며 동두천 캠퍼스 내에서는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과 학과 별 부스가 마련되어 재학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었다.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가 운영하는 캐리커처 부스는 그림 작가 못지않게 솜씨 좋은 학생들이 손수 부스 참여자들을 그려주면서 작화 순간의 모습을 담아낸 그림 한 장에 추억을 담아주었다. 또, 간호학과에서 주관하는 게임형 부스에서는 총 5문제를 단계별로 맞출 때마다 도장을 찍어 인증받고 상품을 부여하는 방식의 체험형 부스를 진행했다. 부스 부근에는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이 몰렸고, 저마다 손에 상품 하나씩 들고 도장을 모으기 위해 문제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여럿 보였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준비된 덕에 재학생의 반응이 좋았고, 부스 운영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부스 방문자들의 높은 참여율로 이어지게 되어 행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냈다.

의정부 캠퍼스에서는 학교 입구에서부터 캐릭터 숭사탕, 풍선터트리기, 문구 소품 판매, 지비츠 판매, 타로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플리마켓 부스가 학생들을 반기며 행사의 흥을 돋우고 있었다. 특히, 타로 체험 부스의 줄은 끊이지 않았고, 타로사의 재치있는 미래 예견으로 학생들은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에벤에셀관 뒤편에선 학과의 특색을 담아낸 학과 부스가 다양한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재학생들의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렸던 '식조 부스'는 떡꼬치, 벨기에 감자튀김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센스 있는 메뉴 구성으로 행사 종료 시까지 학생들로 북적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식품외식산업학과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협업하여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판매 중인 수제 메뉴 중 하나를 고르게 하여 선착순으로 무료 쿠폰을 발급하는 혜택과, 슬러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의 제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행사를 즐기며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게 먹거리 존으로 여러 종류의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먹는 즐거움으로 학생들의 기쁨을 더했다.

행사가 정점을 향해 갈 무렵, 버스킹 무대를 앞두고 공연 전부터 많은 관중들이 모여 기대와 환호를 보내왔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교내 공연 분과 동아리인 '범'에서는 <난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을 열창했고 관객들의 폐창을 이뤄내며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소리패'는 <천상연>과 <봄이 와도> 등 대중적인 어쿠스틱 발라드 장르를 뛰어난 가창력으로 소화해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악당'은 <난청>, <kill bill> 등 스텝 그 넘치는 곡들로 무대를 채워 관중들과 교감하며 힘합 본연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 k-pop학과서도 퍼포먼스 가득한 퀄리티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나를 바라봐 코스프레 대회', '부숩버려 격파왕!', '우리 같이 사진 찍을 과?' 등의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열혈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수여 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5대 총학생회 당선 이후 주최된 첫 번째 행사로써, 본교 재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했던 이벤트로 좋은 추억을 안겨주며 마무리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어버이날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불어넣은, 'Oh Happy Day!'

건강 나눔 프로그램부터 짜장면, 문화 공연까지, 풍성하게 채운 신한대학교 어버이날 행사 성료
강성종 총장 “어르신들은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어제의 주역” 존경 표해

<이민주 기자, 김규리 수습기자>



신한대학교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대학생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즐길 수 있는 'Oh, Happy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 시대의 빛나는 주역인 65세 이상의 의정부시 거주자와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라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는 '건강 나눔 프로그램', '문화 공연', '짜장면데이 프로그램' 등의 이색적인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건강 나눔 프로그램'은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통합대체의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안경광학과, K-뷰티학과, 치기공학과 등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학과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을 진행했다. 안경광학과에서는 시력검사 및 돋보기안경을 배부했으며, K-뷰티학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커피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각 학과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짜장면데이 프로그램'이었다. 지역 어르신과 신한대학교 재학생 각 1,000명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배부하는 이벤트로, 시험으로 지친 학생들에게는 한 줄기 응원이, 학교를 찾아준 어르신들에게는 나눔의 행복이 찾아왔던 순간이었다. 현장에서는 행사를 위해 자리한 수많은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어르신과 학생 모두 쾌적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어버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문화 공연'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의정부 장로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합창 공연부터 소프라노 (김현주), 가야금 & 현대무용 (문재숙, 강선옥 교수), K-POP학과 (한가영 교수) 등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공연으로 현장을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취지에 맞게 트로트 가수 박영규, 박주희, 나경화, 김태군을 섭외하여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으며, 이후에는 시니어 모델 워킹과 태권도학과의 무대가 이어지며 공연을 풍성하게 채워냈다.

행사는 신한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단체와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어버이날의 의미를 살려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재강 당선인, 박지혜 당선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김형두 지회장,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이선화 목사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냈다.

강성종 총장은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어제’의 주역으로, 기억과 지혜, 축적된 지식의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또한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신한대학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위치 향상을 위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과 봉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총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직접 실천함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이루어질 오병이어(들들들들)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점차 커져가는 지역사회 세대 간의 격차 속에서 신한대학교는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보람찬 행사를 기획했다. 본 행사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어버이날,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나눔 및 배려를 실천하는 봉사 역량을 키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Oh Happy Day' 행사는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신한대학교는 지역사회에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는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공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Shinhan Water Festival

2024 신한대축제

[Shinhan Water Festival] 더위마저 잊게 한 신한인의 ENERGY!

> 이민주, 구현지, 최지원, 신혜미, 정영지, 김민지, 김아연, 양채원, 이재연 기자 >

신한대학교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 2024 신한대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날씨에 지쳐가는 학생들의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Water Festival'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컨셉에 맞게 당일 현장에는 워터 슬라이드부터 서핑보드, 워터 어택, 물대포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학 축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덕분에 축제 당일 날씨가 몹시 무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찾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입가에는 청량한 미소가 웃돌았다. '여름 축제'에 가장 걸맞는 컨셉으로 진행된 이번 2024 신한대축제의 강렬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본다.

축제의 흥을 깨우다, '부스 체험' 및 '워터 어트랙션'

축제의 막이 오르고 본교 캠퍼스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입성한 순간, 운동장에선 이미 다양한 종류의 부스들이 한데 모여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지각색의 체험형 부스를 비롯한 먹거리 부스와 플리마켓, 푸드트럭이 배치되어 참여자들의 체험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온전히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양일간 진행된 부스는 30여 개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과대학/동아리/학과 별로 학생들의 기획, 관리 하에 운영되었다. 부스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끊임없이 사람이 몰렸던 부스 두 곳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SKETCH'에서 진행한 비즈 제작 체험 부스는 직접 자신의 취향대로 제작해 볼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였고, 더불어 손수 제작한 비즈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여러 종류의 악세사리를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즐길 거리가 많아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동아리 '악당'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달콤한 미숫가루와 아이스 커피를 판매해 지나가는 이들의 걸음을 멈춰 세웠고, 바로 옆에 진열해둔 빈티지 옷도 센스있는 부스 기획 덕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였다.

부스와 마찬가지로, 워터 어트랙션 역시 축제 내내 함께 진행되었다. 워터 페스티벌답게, 운동장 부지 내에 '워터 슬라이드'와 '서핑보드'를 설치해 기존의 축제와는 이색적인 느낌으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워터 어택' 행사도 타임 별로 동시 진행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뜨거운 여름날 청춘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겼던 부스 체험 행사와 워터 어트랙션 행사로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행복한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선보이다, '소리패'와 '밤'

동아리 공연은 어쿠스틱 동아리 '소리패'와 밴드 동아리 '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어쿠스틱 동아리 '소리패'는 먼저 '보야'의 '아틀란티스 소녀'로 설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카더가든'의 '나무', 'Tones And I'의 'dance monkey' 등 어쿠스틱 동아리로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실력으로 축제 분위기를 물씬 돋운 '소리패' 다음으로, 밴드 동아리 '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소리패'에 이어 '밤'은 폭발적인 관객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넥스트'의 '그대에게'로 무대를 시작한 밴드 동아리 '밤'은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연 중간 물대포로 시원한 축제 공연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John Mayer'의 'I don't need no doctor', 'Eagles'의 'Hotel California'로 밴드 음악의 매력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울랄라세션'의 '아름다운 밤'으로 무대를 뛰어다니며 신한인들의 폭발적인 환호로 동아리 공연을 마무리했다. 두 동아리의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며, 모두가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개막식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대 공연은 자치단체 소개로 문을 열었다. 공과대학, 간호대학 등 신한대학교를 대표하는 단과대학들의 학생회가 회장을 필두로 간단한 소개와 춤을 선보였다. 재치 있는 학생회의 춤사위는 관객들의 반응을 끌어올렸고 무대 밑 객석과 운동장 부근에서 계속하여 웃음소리를 비롯한 환호가 이어졌다.

신청 공연팀의 화려한 춤 선과 감성 자극 발라드

환호로 만들어진 무대의 열기는 신청 공연팀이 이어받았다. 첫 순서로 '최소희 팀'이 앞장서 현아의 'Party', 포미닛의 '미쳐'를 소화하며 실제 댄서를 방불케 하는 매력 있는 춤 선을 보여주었다. 다음 차례인 '김다현 팀'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스트릿 우먼파이터 'YGX 메가크루'의 춤으로 깔끔하게 바통을 이어받았다. 앞서 공연들이 더위마저 잊게 만드는 강렬한 춤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박희영 팀'은 블랙비의 'HER'과 같이 신나는 노래 뿐만 아니라 NCT DREAM의 '퀸디', 동방신기의 '풍선'을 선보여 격하지 않은 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퀸디' 중 축제 처음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분위기가 고조되어 마치 파티를 연상하게 하였다.

신청 공연팀의 대미는 특별한 댄스팀이 장식했다. 고등학교 댄스 크루들의 공연이다. 이는 신한대학교 최초 최연소 공연자의 발자취로 남았다. 송현고등학교의 디아나 크루, 경민고등학교의 파츠 크루 등 총 네 고등학교가 무대에 당당히 올랐다. 이들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ridiculous' 등 다양한 곡과 멋진 춤 선을 선보여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용기와 실력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군 힙합동아리 '악당'과 댄스동아리 '흥'

학생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신한대학교 대표 힙합동아리 '악당'은 'Deep House'라는 곡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시작했다. 다음으로 'Long Time No See', 'Asap Remix'로 무대를 다채롭게 채워내며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뒤로 'Split Sale', 'Freeze', '알리움', 'OkGo4', 'BoomBap' 등의 노래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악당은 'Water Festival'이 컨셉인 이번 축제에 맞게 물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열띤 호응에 화답하며 열정으로 가득 찬 무대를 보여줬다.

이어서 댄스동아리 '흥'이 'Macarena + Police Man Remix'를 시작으로 무대를 넘겨받았다. 그 뒤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Midas Touch', 'SHEESH', 'Siren' 등 인기 있는 케이팝에 맞춰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신한대학교 대표 댄스동아리답게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그들만의 매력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 솔라

열정 가득했던 동아리 공연의 여운이 남아 있는 가운데, 연예인 공연 첫 번째 순서는 마마무 '솔라'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솔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솔라는 이날 자신의 신곡인 'Colors', 'But I' 그리고 '뱀어', '꿀' 등을 열창해 무대를 채웠으며, 마지막으로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선보였다. 솔라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어우러진 댄스는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으며, 축제 첫날의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솔라는 공연 첫 번째 순서인 만큼 많은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에 답하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곡을 따라 부르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젊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영파씨

공연의 두 번째 순서로 힙합 걸그룹 영파씨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영파씨는 'POSSE UP!', 'MACARONI CHEESE', '나의 이름은', 'Scars', 'XXL' 등 5곡의 노래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영파씨 멤버 5명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인 걸그룹의 열정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영파씨만의 자유분방한 개성과 에너지가 더해진 노래는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영파씨의 젊은 세대를 저격한 무대는 축제를 즐기는 대학생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냈으며, 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다재다능한 매력의 K-POP학과

앞선 공연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채 K-POP학과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팀으로 나누어 각각 감미로운 노래와 신나는 음악에 맞춘 댄스를 선보였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2팀은 학생들의 귀를 편안하게 할 노래를 선보여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뒤이어 댄스를 선보인 3팀은 감성에 젖었던 학생들을 환호로 이끌었다. 이들은 힙합 댄스를 보여주며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뒤이어 중절모를 쓴 듀오팀은 통통 튀는 리듬감의 락킹을 선보여 한 몸이 된 듯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약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부석순의 '거침없이' 노래에 맞춰 힘찬 동작을 보여주며,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연출로 학생들의 환호를 자아내며 공연은 마무리되었다.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 K-POP학과 학생들 덕분에 축제의 열기는 계속되었고, 관객은 남은 열정으로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연예인 공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낭만과 청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청춘 가요제

올해도 어김없이 재학생들의 청춘과 낭만을 담당하고 있는 청춘 가요제가 돌아왔다. S.E.B.S 교육 방송국에서 주최한 청춘 가요제는 5팀의 열정적인 참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학생 혼자서 꼭 채운 무대부터 듀엣, 4인 밴드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다. 직접 기타를 치며 윤택한 '겨울을 걷는다'를 부른 김예건 학생, 듀엣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를 부른 김호, 조현근 학생 팀, 무대에서 랩으로 눈과 귀를 사로 잡은 보이비의 'NIGHT VIBE'를 부른 박진욱 학생, 이룸에 걸맞게 델리스파이스의 '고백'을 부른 델리만쥬 팀, 마지막으로 파워풀 하게 자우림의 '매직 카펫라이드'로 무대를 장식한 청춘걸프란 팀까지 1시간가량 무대가 진행되었다. 1위는 박진욱 학생, 2위는 델리만쥬 팀, 3위는 청춘걸프란 팀이 시상하며 청춘가요제는 막을 내렸다.



발라드부터 가요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만든 '이하이'

2일 차 연예인 공연에는 첫 순서로 이하이가 무대에 올랐다. 이하이는 무대에서 'Rose', '1, 2, 3, 4', '빨간 립스틱', '한숨', '구원자', 'ONLY', '그대가 해준 말' 등 총 8곡의 노래로 무대를 채웠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빈틈없이 채운 이하이는 축제 관람객들의 마음 또한 가득 채워냈다. 노래를 하며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카메라를 지목하는 팬서비스 또한 잊지 않는 등 완벽하게 무대를 만들었다. 관객들의 앵콜 요청으로 '홀로'까지 부르며 공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냈다.

강렬한 물줄기와 함께 시원하게 무대를 장악한 '쿠기, 비오'

앞선 이하이의 무대로 축제의 열기가 더해진 가운데, 래퍼 쿠기와 비오가 축제의 마지막 밤을 담당했다. 쿠기와 비오는 이번 축제의 콘셉트였던 'Water'에 맞게 준비되어 있던 물을 학생들에게 뿌리기도 하며 무대를 한층 더 시원하게 만들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쿠기는 '니가 알던 내가 아냐'를 시작으로 'alone', 'right now', 'good night' 등의 노래를 부르며 뜨겁게 무대를 장악했다. 쿠기는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무대를 진행했고,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은 뜨거운 환호로 대답하며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냈다.

다음 순서로 이틀간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비오는 '네가 없는 밤', 'MBTI', 'Counting stars', '리무진' 등의 노래를 열창하였고, 특히 마지막에 선보인 'LOVE me' 무대는 관객들의 엄청난 환호와 떼창을 들어볼 수 있었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 남은 열정을 모두 쏟아부은 것 인지 관객들의 떼창은 콘서트를 방불케 하며 찬란하게 마무리되었다.

엔믹스의 화려한 무대,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활기찬 앞 순서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엔믹스의 무대가 축제의 첫날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등장만으로도 무대 앞 학생들의 분위기는 점차 달아올랐고, 무대가 시작될과 동시에 운동장은 학생들의 박수와 응원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엔믹스는 히트곡인 'Love Me Like This'를 시작으로 'Roller Coaster', 'DICE', 'DASH' 등의 여러 노래를 불렀고, 학생들은 합성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노래했다. 엔믹스만의 멋진 라이브와 학생들의 떼창이 더해져, 함께 완성한 뜨거운 무대가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엔믹스가 신한대학교의 학과 점퍼를 입는다고 하여 모든 학생의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냈다. 예고한 대로 개성 넘치는 신한대학교의 학과 잠바를 입고 마지막 무대인 'DASH'를 선보였고,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다. 엔믹스는 관객들과 끝까지 인사하며 퇴장했고, 무대는 더욱더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Energy Shinhan Energy Shinhan Energy Shinhan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

논술 전형 신설, 경영대학·사회과학대학 통합선발
치열한 입시 경쟁 속 '수시모집 역대 최고 지원자 달성'

<양채원 기자>



2025학년도 신한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9월 9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31일부터 진행된다. 기존 모집 전형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위주 등이 포함된 수시전형과 수능 위주, 실기 위주 등이 포함된 정시전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2025학년도 신한대학교 모집 요강에는 전형신설과 모집 단위 변경 등 눈여겨볼 주요 변경 사항이 존재한다.

이번 2025학년도 신한대학교 모집요강 중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의 신설이다. 논술전형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 요소에는 학생부 교과성적·논술이 있으며 반영 비율은 각각 10%·90%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교과군의 우수 10개 과목이 반영된다. 신설된 전형인 만큼 출제 범위와 평가 기준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평가 영역은 국어·수학능력으로 평가 기준은 각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와 기호를 사용한 표현을 평가한다.

고사시간은 80분으로 문항 수는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이며 자연과학·공학계열은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수능최저 학력기준이 논술전형에만 적용된다. 새롭게 신설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논술전형 총계를 살펴보면 지원인원 2,376명을 기록하며 19.1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다른 2025학년도 입시 주요 변경사항에는 모집단위 통합선발(자율전공 선발)이 있다.

기존에는 빅데이터경영학과, 글로벌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에서 각각 선발했지만, 변경 후 경영대학 통합 선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토지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도 사회과학대학으로 통합 선발된다.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유아교육과 제외) 통합선발 입학생은 2학년 전공선택 시, 단과대학 내 모든 학과(유아교육과 제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통합선발 변경 이후 이와 관련하여 한수범 경영대학장은 “학생들은 디지털 능력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화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적인 시각과 다양한 문화 이해력, 언어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융합하여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며 경영대학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임원선 사회과학대학장 또한 “신한대학교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지표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기초학습능력, 인성, 전공 적합성으로 개편하였으며 실적우수 자전형인 경우 학교폭력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경향과 입시 흐름을 분석해 변화를 준 결과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수시모집 역대 최고 지원자 달성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혁신적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중앙도서관

새로운 교육환경, 첨단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 형성

<구현지 기자, 김규리 기자>



신한대학교는 지난 10월 14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중앙도서관은 1995년 개관 후 약 28년간 사용된 건물이다. 그 간 변화에 앞서서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하였으나, 이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지원을 통해 첨단 교육시설 및 노후 시설 개선, 첨단시스템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교육시설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이번 준공식은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의 과정을 거쳐 재탄생하였음을 기념하며 강성중 총장 외 많은 내빈 관계자가 자리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행사는 김기순 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새롭게 개편된 시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기순 관장은 "중앙도서관은 학생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기관으로 이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재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설이다."라며,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고 즐겨거워하는 공간이 되도록 활기참과 생동감이 있는 시설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고 말했다.

새롭게 변화된 중앙도서관의 주요시설은 미디어 교육 및 첨단기기 체험을 지원하는 <상상플러스 존>, 개인학습, 그룹 활동 등의 복합 지원 공간인 <창의플러스 존>, 디지털 기기 사용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돕는 <디지털플러스 존>으로 구분된다.

1층에 위치한 <상상플러스 존>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 라운지와 미디어 월(Media Wall)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층에 위치한 <창의플러스 존>은 라운, 가운, 어울림의 공간으로 나누어 심, 소통, 학습, 협업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같은 층에 위치한 <디지털플러스 존>은 와이드 모니터 및 최신 사양의 PC 및 전자칠판을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자유로운 PC 활용을 지원한다.

이번 리모델링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중앙도서관 벽체 디자인의 테마는 '길'이다. 이 '길'은 김소월의 <가는 길>, 윤동주의 <새로운 길>, 정호승의 <불길> 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창의적으로 디자인되었다. 각 시를 타이포그래피로 길 위에 표현하여 예술감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벽체를 바라봄으로써 문학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각 층의 테마 색상을 적용한 타공 게시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석으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의 프로그램 공지 및 재학생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은 "미래교육과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진정한 SMART LIBRARY로의 중앙도서관 변화를 축하한다."고 전하며,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에서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서 이거파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신한대학교에 대해 학생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생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한대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학습환경을 구축해 오는데 꾸준히 힘써왔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 및 반영하여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변화한 중앙도서관의 활발한 이용을 통한 교육혁신과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창출을 기대하는 바이다.





가을 운동회의 꽃 신한대체전 Shinhan Sports League [SSL]

코로나 19 이후 2번째 성황리에 개최하다
결과를 넘어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축제의 장

< 정현지 기자 >



2024년 9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신한대 캠퍼스는 체전의 열기로 가득 찼다. 기존 신한대체전과 달리 한 달의 기간을 두어 종목별로 토너먼트, 리그전이 진행됐다. 신한대체전은 단순히 결과를 넘어 학생들끼리 땀 흘리며 화합하고, 학생들의 열정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신한대체전은 축구, 피구, 농구, 배드민턴 4가지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경기마다 참가자들과 관중들의 열정으로 경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신한대체전의 상금은 포인트 제도를 뒤서, 참가자들끼리 자유롭게 분배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4가지 종목 외에도 탄산음료 빨리 마시기, 학과 대항 응원전 및 승부 예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다. 또한 신한대체전을 개최하며 재학생들을 위해 포토 이벤트도 진행했다. 포토 에이스 기계를 대여하여 에벤에셀관, 행함관 각각 1대씩 배치했다. 포토 부스는 신한대체전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촬영 후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업로드 후 구글 폼에 신청양식 작성 시 마일리지 상점 10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신한 리그 종목 중 축구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졌다. 11월 4일 오후 8시가 넘어서도, 과와 동기들을 응원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합성을 지르고, 복을 치는 등 다양한 응원이 펼쳐졌다. 피구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빠르게 이뤄져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11월 5일 농구 코트에서는 각 팀별로 뛰어난 기술과 단합이 어우러졌으며, 관중들의 합성은 농구코트를 흔들었다. 배드민턴에서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2개의 리그전으로 경기를 이어 나갔다. 가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열정으로 가벼운 차림으로 경기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이번 신한대체전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대회를 준비한 학생회 시너지의 노고로 완성되었다. 학생회 시너지는 경기 스케줄을 조정하고, 장비 준비, 심판 선출 등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경기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응원 도구를 가져와 응원전을 펼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신한대체전 총 결과, 축구 1위는 치기공학과, 2위 안경광학과 간호학과 연합팀, 3위는 글로벌 관광경영학과가 차지했다. 농구 1위는 미스테이크 팀, 2위는 치기공학과, 3위는 글로벌 관광경영학과 소프트융합 연합팀이 차지했다. 피구는 1위 미스테이크 팀, 공동 2위로 치기공학과, 최강유교, 이빨과 미생물 팀이 차지했다. 남자 복식 배드민턴은 공동 1위 방사선레이저스, 에너지환경공학과 3위 첨단소재공학과가 차지했다. 여자 배드민턴 복식은 1위 식품영양학과, 2위 미스테이크 팀, 공동 3위 치기공학과, 임상병리학과가 차지했다.

특히 이번 신한대체전은 승패에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가 서로를 응원하며 즐기는 분위기가 돋보였다. 각 종목의 경기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지만, 동료들 격려하며 이번 대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다. 시간이 길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신한대체전은 학생들에게 봄 축제 이후 가을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경기 중에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응원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코로나 19이후로 2번째 개최된 신한대체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 가 아닌, 모든 학생이 하나가 되는 대회였으며, 11월 5일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SYNERGY

[SYNERGY] 최고의 추억을 선사해준

2024 가을축제

^ 신혜미 기자 ^

전공별 특색을 선보인 학과 부스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현장, <학술제
생생한 명곡 무대의 향연으로 환호성 터지다, <이창섭 공연>
가을밤 캠퍼스의 낭만을 위하여, <시너지 야시장>

만추의 자취를 따라 교내 캠퍼스가 단풍으로 알록달록 무르익어 갈 무렵, 해마다 전통적으로 행해져 내려오던 '학술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시험이 끝나 더욱 흥분한 시점에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로부터 높은 기대감을 받았다.

2024학년도 학술제가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은혜관 지하 체육관 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제는 총학생회 주최로 기존의 행사에서 나아가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와 이색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의 형식을 적용해, 2학기에 처음 진행하게 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시너지 야시장과 별빛영화제를 학술제 기간에 동시 병행하였기에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재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한데 모여 빛을 발했던 학술제의 현장은 열정과 정성으로 각 학과의 특성이 조화롭게 융화되어 학업 역량 발휘의 계기가 되었던 화합의 장이었다. 다채로운 부스들이 입구를 시작으로 체육관 전체에 삼렬해 학생들을 반겨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부스는 출입구에 위치한 총학생회 부스였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팸플릿을 받아, 각 부스들을 구경하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체험 완료 판에 스티커를 부착해 제출하면 스티커의 개수에 따라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부스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있었다. 다채로운 부스들이 준비한 가운데 학생들의 인파가 몰렸던 부스들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부스들을 위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미디어영상학과는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동영상의 선택지가 2개로 나뉘어 제시되는 스토리 게임 체험을 준비했다. 미디어 진출 분야의 무궁무진한 진로적 특성을 반영한 영상의 결말을 갖고 있어 안내 진행에 따라 체험 후 상품까지 받아볼 수 있어 흥미로운 체험 부스 중 하나로 손꼽혔다.

사회복지학과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부스명에 걸맞은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체험형 부스를 마련했다. 편마비 지체 장애 체험을 위하여 팔에 저주파 기계를 착용하고선 최단 시간을 목표로 빠르게 젠가 6블록을 쌓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알코올 사용 장애 체험으로 음주 체험 고글을 착용하고 바닥에 있는 선을 따라 종착점까지 걸어가 링을 던지는 활동적인 콘텐츠를 준비해 많은 학생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부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보였다.

행정학과는 마스크트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 17개의 행정구역 마스크트를 부스 방문자들에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유익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흥미를 이끌어냈다. 키링을 직접 만들면서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부스를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설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또, 지역 퀴즈 맞추기 게임을 통해 맞힌 개수만큼 상품 추첨의 기회를 주어 은연중에 지역에 대해 배워볼 수 있게 부스 프로그램을 전공과 연관 지어 구성했다는 점에서 학과의 특성을 잘 살려냈다.

유아교육과는 티니핑 감정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색깔을 이용하여 감정을 반영해 소근육 자극이 가능한 키링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비즈와 물품들을 구비하여 부스 참여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테이블에서는 탄산음료 맞추기 콘텐츠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오감 중 미각을 사용하여 음료 맞추는 게임을 통해 재미를 유발하여 부스 체험자들의 흥을 북돋아 냈다.

상담심리학과는 드라마 속 장면엔 비친 배우들의 감정 맞추기 체험을 통해 감정의 종류를 되뇌어보며 일상 속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감정을 표현하여 스노볼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글리터의 색깔을 골라보고 제조하는 과정을 통해 부스 운영자의 도움을 받아 부스 참여자들의 손길로도 어렵지 않게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스 방문자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곤 호기심을 가지고 둘러보게 되는 인기형 부스 중 하나였다.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며 어느덧 해가 저물고,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 위치한 원형극장에서 학술제의 밤을 불태울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공연으로 축제의 포문을 열고, 이어 K-pop 학과 공연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전공역량을 발휘하여 펼쳐낸 열정 가득 담긴 학술제의 무대 위에서 선보인 곡들은 '내일 할 일', '소녀', '날씨가 미쳤어', '슈가코트', '이글루', '누구 없소', '미안해', '럭키' 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으며 신한인들의 열렬한 응원 가운데 무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 신한대학교 강성중 장군이 내방하여 신한인들의 학술제를 응원하며, 무대를 관람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과 "신한 파이팅!"을 연이어 세 번 외치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린 온 웃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올해 학술제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이들을 기대하게 했던 연예인 찬조 공연 무대를 앞둔 학생들의 반응이 극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고, 무대 전석을 꽉 채워 빈틈없이 매진시켰다. 곳곳에서 응원봉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보였으며, 밤이 되어 추운 날씨임에도 학생들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 피어있었다. 무대 위로 비투비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이자 예능인 '이창섭'의 모습이 드러나자 원형극장을 둘러싼 모든 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창섭의 학생들을 향한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되고, 곧바로 'OLD TOWN' 곡을 들려주어 가을밤의 낭만 가득한 무대를 선사해 후속곡들의 기대감을 자아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팬심을 어루어주며, 유아교육과 한 학생의 학과 잠바를 빌려 입곤 공연을 이어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었다.

연이어, 가수 이창섭의 히트 명곡 'Stay', 'Golden Hour', 'Macchiato'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 하여금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공연 중간에 관객석으로 뛰어와 학생들에게 팬서비스 해주는 면모를 보여주어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학술제 추억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나갔다.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New wave'를 들려주었으며, 관객석에 앉아 있던 모든 이들의 앙코르 요청에 힘입어 또 한 번 앙코르곡으로 요즘 가장 핫했던 이창섭의 히트 곡 '천상연' 감상을 끝으로 모든 무대 공연의 막을 내렸다.

가을의 광활한 밤하늘에 수 놓인 별빛 아래, 본교 의정부 캠퍼스에서는 '플리마켓'과 '시너지 야시장'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플리마켓'에서는 체험과 소풍을 할 수 있게 캐리커처 체험형 부스를 비롯하여, 액세서리와 가방 판매형 부스들로 풍성하게 늘 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플리마켓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시너지 야시장'에서는 학생들의 허기를 달래줄 각각색의 맛있는 메뉴들이 겸비된 푸드트럭이 줄을 지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사이마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었다. 닭강정, 소고기 초밥, 새우튀김, 야끼소바 등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테이블은 어느 시간 때건 항상 사람들로 북적여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학술제 행사기간 동안 국제교류처와 총학생회가 함께 준비한 '별빛영화제'는 타임 별로 다양한 국적 별 영화를 상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볼거리를 풍족하게 제공해 신한인들의 학술제에 낭만을 더해주었다.



SHINHAN COMMUNITY .01

맞춤형 학생역량관리시스템 MYCA+

“언제 어디서나 학업 관리가 가능해진 공간”

〈구현지 기자, 김우엽 수습기자〉

MYCA+

신한대학교는 지난 2024년 3월 4일 맞춤형 학생역량관리시스템 MYCA+(마이카플러스)를 정식 오픈했다. MYCA+는 신한대학교 대학혁신본부 성과평가센터의 주관으로 프로그램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의 협력으로 성황리에 오픈되었다.

MYCA+는 학생맞춤역량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학생들의 대학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비교과 과정 그리고 각종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역량 함양 지원 및 양질의 교육과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역량 관리 시스템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 자격증 관리, 취업 및 경력 개발 등의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핵심역량 체계를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MYCA+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기존에는 신청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부족했던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환경을 구축해, 대학 전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은 학습컨설팅, 사서 주관 독서 모임 등 다양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습득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4 학습컨설팅은 MYCA+를 통해 빛을 발했다. 이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학습 문제 확인 및 분석을 통해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MYCA+는 학생이 취득한 마일리지 인증제 실적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 확인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학습 참여 동기를 유발하며, 학생 개인에게 부족한 역량을 분석하여 본인이 핵심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와 학생 개인별 목표 달성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2024 학습컨설팅은 자기 주도적 역량지수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이러한 MYCA+ 운영 취지에 매우 적합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신한대학교 MYCA+의 교과 활동 카테고리에서는 수강 과목에 대한 수업 계획서, 수업 노트, 나의 다짐, 성찰 노트를 작성하여, 한 학기 동안 수강한 과목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학업 역량을 개선하고 학업 목표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교내 기자재 대여와 공간 예약을 재학생 누구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본 학생들은 'MYCA+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과 '학업 역량과 관련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MYCA+ 담당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해당 시스템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편하게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학생들과 운영 부서가 시스템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2024년을 기점으로 실행된 신한대학교 MYCA+는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학 생활을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체계적 기반을 구축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SHINHAN COMMUNITY .02

신한가족이라면 ‘건강 UP↑’

신한대 건강관리센터, 교직원과 학생에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연 24회 정보 제공으로 ‘건강 체크’

〈정현지 기자〉



신한대학교 학생이라면, 건강관리센터에서 온 쪽지를 받아 본 적 있을 것이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신한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신한 가족들을 위해 연 24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주제는 성인병부터 의료상식, 건강관리 등 폭넓고 유익한 건강 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바쁜 일상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관리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학제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들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인 건강 상태 체크 및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체 성분 분석, 식단 관리, 운동 처방 등의 개별적인 상담 및 코칭을 받게 된다. 또한 의정부 캠퍼스 내 조성된 교내 건강 돌레 길을 통해 걷기를 생활화하고,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가 구강 검진이나 뷰티 패션, 교양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장 최근 진행된 제4회 건강증진프로그램은 1대 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건강 상담, 운동 프로그램, 운동 DAY, 총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돌레길 걷기, 건강 카드 뉴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스페셜 프로그램으로는 구강 검진부터 뷰티로는 분야의 퍼스널 컬러 진단, 메이크업, 뷰티 스타일링, 패션 분야의 건강 워킹 및 패션 특강, TPO 힐링 스타일링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교양 & 매너 분야는 매너 및 에티켓, 테이블 매너, 의자 매너, 식사 예절 특강이 있고, 쿠킹 분야에서는 비만 예방 식습관 관리 및 쿠킹코칭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된 건강증진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 만족도의 경우는 5점 만점 기준 첫째 4.25점, 2회 4.55점, 3회 4.79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로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서 체중 변화가 생겼다.”, “바쁜 점심시간을 틈타 신한대 돌레 길을 걸으며 생활 습관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나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 참여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금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교내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주변 병·의원과 약국 이용 안내 카드 뉴스를 번역본으로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고, CPR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정부 보건소장과 주요 부서 처장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참여하는 건강관리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사업 관련 보고 및 개선사항의 수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교직원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시로 학생들에게 스마트 건강 측정 장비를 활용한 건강 상태 측정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관리센터 관계자는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건강 워크숍, 세미나 및 건강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더 나아가 학생과 교직원의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정부시 지역 사회 및 전체 커뮤니티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건강관리센터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맞춰 원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대상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해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비만 관리 유형 검사 등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비만 예방 관리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챗봇을 통해 더욱 쉽게 인바디 측정 날을 예약하거나, 간단한 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 많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건강관리센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해 보길 바란다.





SHINHAN COMMUNITY .03

비기독교인이 함께하는 기독교 축제
D.MZ 어노인팅 평화 축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제의 개막
음악과 강연을 통한 종교 통합
7월 1차 축제에 이어 11월 2차까지 성료

〈김우엽 기자〉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2024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1차 D.MZ 어노인팅 축제가 열렸다. D.MZ는 Dynamic MZ의 줄임말로써 성경 구절인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를 내세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과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개최되었다.

D.MZ 축제는 CTS기독교TV, CGN, FEBC 극동방송 등 방송 3사의 후원을 힘입어 신흥학원 신한대학교와 (사)디엠지 피스(DMZ Peace)가 공동 주최하여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학교가 위치한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북부 지역의 다음 세대들 역시 참여하고 싶은 모두가 종교를 떠나 초대받는 대상이 되어 참여하였다.

이번 기독교 축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진행되는 종교 축제이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다양한 공연과 강연 등을 통해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었으며 가수들의 공연이 참가자들을 하나로 만들며 축제의 막을 열었다.

비와이, 박광식 밴드, 구현모, YEGNY 등 유명한 가수들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비와이는 28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히트곡인 'Forever'을 시작으로 미공개 신곡까지 11곡의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관객들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의 천장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을 보여주었다. '레비소탕스'와 '로드웨이브' 예배팀이 무대에 올라와 거룩한 찬양가가 이루어지며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연 자리는 최영환 대표와 렛츠고 코리아 대표인 Mark Joe 목사, 더 푸른교회의 담임목사가 올라와 '신뢰하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주제를 통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희망과 열정, 도전을 주는 힘찬 강의를 보여주었다.

당시 최고 기온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여름이었음에도 종교를 떠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행사 일정과 라인업을 통해 약 2,500명의 다음 세대가 행사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행사 이후 인터뷰에서 '찬양과 즐거움을 동시에 받으니 너무 좋았다', '이렇게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재참여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D.MZ 캠프를 개최하고 주관한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며, Dynamic MZ 어노인팅 축제의 경배와 찬양이 세상을 깨우는 사랑과 평화의 물결이 되어 새 시대를 여는 소망의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3일 간의 축제의 시작과 끝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자리했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 "125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며 추후 진행될 제2차 Dynamic MZ 행사의 예고를 알리며 동시에 신한대학교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가할 모두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성중 총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국가 간 협력적 평화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세계 유일의 DMZ가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거듭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혀 D.M.Z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제1차 D.M.Z 행사에 이어 제2차 D.M.Z 행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많은 가수과 강연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어 한 층 더 전문적인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수천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선의 선과를 보여주었다. 강성중 총장은 행사의 마지막에 “D.M.Z 어노인팅 평화축제는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2025년 제3차 축제를 기약하는 의사를 밝혔다. 제2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향후에도 계속될 D.M.Z 행사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이 예고한 대로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D.M.Z 세대를 위한 세계평화 리더로서의 교육과 D.M.Z 세대를 위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심어주는 미래현장교육을 주목적으로 제2차 Dynamic MZ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두 번째로 진행된 D.M.Z 축제는 '세계평화, '기후위기극복', '빈곤과 차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특별히 1천 백여 명이 참여한 '세계 평화를 위한 청소년 편지 쓰기 대회'가 함께 진행되었다.

제1차 D.M.Z와 마찬가지로 드럼연주자 리노, 최강 비보이 소리 포스와 갬블러크루, 가수 범키, 가수 송하예, 가수 하다쉬뮤직 (50kg, 아년딜라이트) 포레스텔라, 빅콰이어, 헤브리 워십, 가야금 이예랑 등의 유명인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김요셉 이사장(기독중앙학원), 레비스탕스, 장향희 교수(백석대), 이은혜(탁구 국가대표선수), 양영자(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등이 뒤를 이어 '어게인 크리스마스 미라클'(Again Christmas Miracle)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SHINHAN COMMUNITY .04

“기자가 직접 체험해 봅니다” 신한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2024 디지털 맞춤 직무아카데미, ‘Learn UP’ 신한 스터디 그룹, ‘디지털 협력 노마드’ 등
교내 프로그램을 학생기자가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솔직하고 생생한 감상을 남겨본다.

〈구현지, 김규리, 이채연 기자〉



PROGRAM. 01

청년일자리센터 2024 디지털 맞춤 직무 아카데미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행함관에 위치한 청년일자리센터는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청년층을 위한 기회로 의정부시 청년,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 대상자의 취창·업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정보 포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또한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업 지원 및 직무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 맞춤형 직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의 일정을 학기 초에 제공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취창·업 프로그램 선택과 운영 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취업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인 디지털 맞춤형 직무 아카데미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의정부시 청년을 위한 자격증 교육은 <스프레드시트 실무>, <프레젠테이션 실무>, <빅데이터 분석 실무>, <ACP포토샵>, <ACP일러스트>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교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기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학생기자가 직접 참여하며 취창·업 역량 강화에 어떠한 부분들이 이점으로 다가오는지 체험해 보았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024 디지털 맞춤형 직무 아카데미 <프레젠테이션 실무 2급> 자격증 과정에 참여했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진행되었으며,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효율성을 발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작업 기법을 단기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루기 어려운 전문적인 작업까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 평소 단순하게 이용했던 프레젠테이션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빠른 실행 및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응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앞둔 4학년의 입장에서 교내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으며, 실무에서 사용되는 제안서 및 보고서 양식 제작을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디지털 맞춤형 직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는 학생에게 더 나은 취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이 교내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의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

PROGRAM. 02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Learn UP' 신한 스터디 그룹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이다. 대학에 선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가 쌓일 수 있다. 이때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한다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년간 신한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Learn UP 신한 스터디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보았다.

지난 3월 20일, 4명의 스터디 그룹원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신청서는 학생들의 학습계획서를 통해 스터디 그룹의 학습 목표와 주별 학습 계획을 확인하여 스터디 그룹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2024년도 1학기 Learn UP 신한 스터디 그룹은 학생들이 신청서를 직접 MYCA+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작성된 계획을 바탕으로 총 59팀이 선정되었다.

3월 25일, '신한 스터디 그룹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터디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8회 이상의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에 학생들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 비결을 공유하고 습득하며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대인관계 및 소통 능력도 함께 향상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스터디 활동 중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토론한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토론을 통해 4명의 학생이 같은 주제를 보더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스터디 활동 중 다양한 의견이 모여 더 깊이 있는 토론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 그룹의 활동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를 통해 스터디 그룹의 특색을 살린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다. 타 학과의 학습 내용을 볼 수 있기에 익숙하지 않은 과목에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터디'라고 해서 단순히 공부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서로의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PROGRAM. 03

**신한대학교 교수학습센터, '디지털 협력 노마드' 프로그램 성료
Chat GPT 활용 중심의 생성형 AI 교육으로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 선도**

신한대학교 교수학습센터가 매년 운영하는 '디지털 협력 노마드' 프로그램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실습에서 유료 버전 Chat GPT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줬을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20점의 이수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 제출해야 하는 Chat GPT 활용 과제 중 우수한 결과물에 부문별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3명, 20만 원), 장려상(5명, 10만 원)을 시상하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신조어로, 먼 거리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는 학생을 뜻한다.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협력 노마드'는 재학생들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Chat GPT 활용'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결합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사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익힌 뒤, 오프라인 실습 강의에서 이를 실제로 활용해 보며 경험을 쌓았다.

온라인 강의는 △생성형 AI 기초 △생성형 AI 서비스 비교 △Chat GPT 개인화 활용법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작성법 총 4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기존의 AI와는 다르게,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과를 도출하여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을 시작하며, 생성형 AI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루었다.

오프라인 실습은 3일간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전에 공지된 대면 실습일 중 1일 이상을 참여해야 프로그램 참여가 인증되었다. 3번의 실습은 각각 Chat GPT를 활용한 글쓰기 실습과 이미지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두 주제를 같이 다루었다.

실습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사전에 알려 준 활용 방법을 토대로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Chat GPT를 사용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만든 결과물들을 게시물 공유 플랫폼인 패들렛(Padlet)에 올리고, 각자 활용한 프롬프트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실습 중에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으며, 강사와 참여 학생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실습 과정을 모두 참여한 학생들은 Chat GPT 활용 과제 결과물을 제출해야 했다. 과제는 '윤리적인 생성형 AI 활용'을 주제로 한 글쓰기 부문과 '교수학습센터 마스코트 제작'을 주제로 한 이미지 제작 부문으로 나뉘었다. 결과물은 성실성, 적절성, 창의성, 기획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과제 결과물을 제출한 44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총 15명의 학생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글쓰기 부문 최우수상은 토지행정학과 이채연 학생, 이미지 제작 부문의 최우수상은 경찰행정학과 김은아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이 널리 보편화되는 요즘, 학생들에게 Chat 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론 학습과 함께 Chat GPT를 활용하여 직접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다. 또한 전문 강사로부터 Chat GPT의 답변을 개인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답변을 도출하도록 하는 질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교수학습센터는 '디지털 협력 노마드 프로그램'을 통해 2022학년도 노션(Notion), 2023학년도 메타버스(Metaverse)에 이어, 올해는 Chat GPT 편을 진행했다. 매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주제로 학생들의 디지털 협업 및 플랫폼 활용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이 프로그램이 향후 어떤 주제로 운영될지 더욱 기대된다.



SHINHAN COMMUNITY .05

신한의 북킹(Booking)을 찾아라!

신한대 중앙도서관, 제3회 경진대회 독서 골든벨 개최

〈이채연 기자〉

지난 11월 6일(수) 18시,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독서골든벨 - 신한의 북킹(BookKing)을 찾아라>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3회 중앙도서관 경진대회로, 신한대학교의 첫 골든벨 퀴즈 대회였다. 독서 골든벨은 온라인 사전 접수 후 독서 골든벨 지정 도서를 읽고 독후감상문을 제출한 신청자들에게 골든벨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독서 골든벨의 지정 도서는 한비아 작가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였다.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국제 긴급구호 팀장직을 맡으며, 긴급구호 요원으로 활동한 한비아 작가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국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국제 긴급구호 요원들의 역할에 대해 생생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꿈이었던 긴급구호 일에 도전하며 겪은 일화들을 통해 삶의 목표와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출간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년들의 권장 도서로 손꼽힌다.

제3회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진대회는 총 450만 원의 장학금을 가지고, 독후감상문 부문과 독서 골든벨 부문으로 나누어 16명의 학생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었다. 또한 골든벨 대회 중에는 상품권이 걸린 난센스 퀴즈 등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약 60명의 골든벨 참여자는 부여받은 번호 스티커와 함께 칠판과 방석 등을 가지고 원형극장 중앙에 모여 앉아 경기에 임했다.

행사는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가 남냐, 내가 남냐! 도전 독서 골든벨!”을 외치며 시작되었다. 김기순 중앙도서관 관장은 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시설들을 언급하며,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꼭 골든벨을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참여 학생들과 함께 “도전, 독서 골든벨!”을 힘차게 외치며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독서 골든벨의 문제 유형은 객관식과 O/X, 주관식 순으로 구성되었고, 각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난도가 점점 올라갔다. 한비아 작가가 국제 구호 일을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전한 “무엇보다도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라는 문장을 가지고 빈칸 문제를 내는 등 책 속 다양한 내용을 담은 문제가 이어졌다. 대회 시작 전, 학생들은 책과 메모를 보며 골든벨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증명하는 듯 패자부활전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이 자리를 지키며, 점차 더 어려운 질문들이 출제되었다. 그 결과, 우연히도 골든벨 부문 수상 인원에 해당하는 11명이 남게 되었다.

수상이 확정된 11인의 순위 결정전을 앞두고, 호원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에잇’의 특별 축하공연이 있었다. 호원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에잇’은 뉴진스의 Attention을 시작으로, 4곡을 더 선보이며 골든벨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또한 번호추첨, 난센스 퀴즈,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상품권 이벤트가 있었고, 골든벨을 응원하러 온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초반에 탈락했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 추첨이 끝난 뒤, 한 문제 차이로 최후의 3인이 결정되었다. 이가연 학생(유아교육과 23학번)과 김민정 학생(바이오식품외식산업학과 21학번), 김은하 학생(경찰행정학과 23학번)은 설치된 무대로 나란히 이동하였고, 먼저 나머지 8명의 순위 결정전이 진행되었다. 이후, 긴장감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주관식 문제로 위 3명 순위가 결정되었다. 10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1등인 총장상의 영광을 얻은 주인공은 유아교육과 이가연 학생이었다. 이어서 경찰행정학과 김은하 학생이 최우수상(1명, 70만 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바이오식품외식산업학과 김민정 학생이 우수상(2명,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1등을 차지한 골든벨 25번 유아교육과 이가연 학생은 1등을 할 줄 몰랐라며, 책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읽어 얻은 결과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든벨 대회가 끝난 후에는 독후감상문 부문과 독서 골든벨 부문의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은 부문별로 수상자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진행되었다. 독후감상문 부문은 최우수상(1명, 20만 원)과 우수상(2명, 10만 원), 장려상(2명, 5만 원)으로 총 5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다. 2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 독후감상문 부문 최우수상은 바이오식품외식산업학과 나승미 학생이 차지하였다. 이후 독서 골든벨 시상식을 끝으로 신한대학교의 첫 독서 골든벨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성공적이었던 첫 독서 골든벨 대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골든벨 대회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새롭게 단장한 중앙도서관에서 열릴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SHINHAN COMMUNITY .06

무한한 잠재력을 만개해 세계로 도약하다, 신한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대학, 유학생을 위한 전문 행정 지원팀을 구성해 어학 수업 포함 다양한 학업 서비스 지원

〈신혜미 기자〉



신한대학교 국제대학은 유학생 전담 단과대학으로서 2024년 3월 ‘덕과 예절’을 중심으로 한 기본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인을 창출해 내고자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학문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생들의 학문적 사고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된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들며 지식을 습득하도록 전문성을 증진 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인성과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적 소통, 문화 이해, 학문 교류가 화합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본 대학은 11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4년제 종합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는 한 개의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며 지식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 전공 선택권을 우선시하여 보장하는 학과 정책 덕분에 전공의 편입과 변경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기에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졌다. 마이크로디그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이중 전공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척해 보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양성되도록 힘쓰고 있다.

현장 중심 교육은 신한대학교의 핵심 교육 방향 중 하나로, 타 대학 및 기관과의 MOU 체결과 파트너십을 통해 실습 과정의 기회와 산업현장 방문의 기회를 넓혀 다방면적으로 실용적인 교육 현상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의 여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견도 반영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대학 소속 계열에는 자연과학, 교양, 인문사회과학, 기술공학으로 4가지 학문 분야가 있고 해당 계열에는 7개의 학과가 속해져 있다. 자연과학 계열의 ‘Department of Nursing Healthcare’ 학과는 학생들이 추후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임상 기술, 지식 및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교양 계열의 ‘Department of K-Beauty Fashion’ 학과는 문제 해결 기술을 갖춘 실용적인 K-뷰티 패션 업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창의적인 K-뷰티 패션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교양 계열의 학과로는 ‘Department of Sport’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하위 강의로 태권도, 골프, 스포츠, 스포츠 의학이 있다. 이 학문은 종합적인 스포츠 지식을 겸비하여 윤리적 원칙을 실천하는 글로벌 스포츠 리더로 다양한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함께 비전을 두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Inclusive Education’ 학과는 유아교육의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들의 수준과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데 학술적 의의를 두고 있다. ‘Department of Global Management’ 학과의 교육과정 목표는 실용적인 기술과 실제 실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리더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술공학 계열에 ‘Department of Software Engineering’ 학과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여 비즈니스에 능통한 엔지니어를 육성하는데 학문적 목표를 두고 있다.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학과는 첨단 기술 변화에 적응 속도가 빠른 공학자를 육성하여 기술의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창의성과 실용 기술을 갖춘 통찰력 깊은 리더십 인재 개발을 학술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유학생을 위한 전문 행정 지원팀을 구성하여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어학 수업을 제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유학생들이 다양한 교내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이들을 위한 행사와 축제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2024년에 시행된 유학생 맞춤 행사로는 <2024년 외국인 유학생의 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보내는 추석 명절 행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대학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극복해내고 안정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라 본다. 향후 우리 대학과 미래 비전을 함께할 외국인 유학생들이 꿈꿔오던 대학 생활을 누리며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우수한 인재가 되어 국제대학과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

SHINHAN COMMUNITY .07

2024년 신한대학교 국제대학유학생 추석맞이 대축제

민족 대 명절 추석, 신한대학교와 유학생이 함께 나는 온기 가득한 하루

〈정현지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함께 보낸 한국 고유의 전통과 명절

신한대학교 국제대학은 전통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9월 16일 월요일에 서울 광진구 독성한강공원에 개최되었으며, 학생들과 국제대학이 함께 했다.



축제를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경험하며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기숙사 및 한국에 거주하며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유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 체험이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한복을 직접 골라 입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찍히며 추억을 남겼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송편을 먹으며, 송편만의 독특한 모양과 맛을 경험했다. 이후 진행된 전통 놀이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명절이 아닐 시기에는 쉽게 보기 힘든 놀이들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그중 투호 던지기와 윷놀이는 유학생들에게 낯선 놀이였지만, 같은 팀을 응원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제대학은 유학생들이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며,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강성종 총장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기념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대학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한대학교 국제대학은 매년 ‘유학생 체육대회’와 ‘유학생의 밤’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먼 길 떠나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을 최우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학생들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추석의 상징인 등근 보름달처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스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 국제대학은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캠퍼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SHINHAN COMMUNITY .08

신한대학교 '2024 카자흐스탄 필름 페스티벌' 개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

〈양채원 기자〉

'2024 카자흐스탄 필름 페스티벌'이 11월 13일, 14일 이틀간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카자흐스탄 영화제에는 한국 학생들, 언론계 및 학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개막식에 앞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이번 영화제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돈독한 우정과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환영사를 전했다.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영화산업의 번영에 관해 이야기하며, 영화제에서 상영할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말했다. 신한대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주치 울루스 8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룬 사르케노프 감독의 주요 작품인 'Hero from the Past'와 알렌 니야즈베코프 감독의 'My Big Kazakh Family'가 메인 영화로 상영됐다. 이 외에도 3편의 카자흐스탄 영화를 상영하며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유산들을 조명했다. 영화는 신한대 에벤에셀관 등에서 상영됐으며,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현대 간의 흥미로운 대비가 그려진 작품들이 상영된 만큼 현대 카자흐스탄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성취, 도전을 볼 수 있었다.

무랏 누르틀레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의 최근 한국 공식 방문이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추진력을 제공했으며, 특히 문화 분야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약 5만 명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수치이며 양국 국민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은 양국 관계의 번영을 언급하며,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하였던 시기에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고려인들에게 보여준 도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신한대는 2023 의정부시와 '2023 중앙아시아 영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024 카자흐스탄 영화제'를 개최하며 신한대 재학생을 비롯한 의정부 및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중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심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는 알마티 내무주 경찰대학교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로 연결된 미래: 영화로 이어지는 교류'를 향한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한국-카자흐스탄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카자흐스탄 영화제는 관객들에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카자흐스탄 영화의 세계를 선보였다. 이 영화들은 카자흐스탄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전통성을 반영하며, 세계 영화예술에 새로운 시각과 풍부한 전통을 더했다. 신한대 강성중 총장은 "이번 영화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랠 기회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과 주민들에게는 세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타문화에 대한 관용성 심화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HINHAN COMMUNITY .09

글로벌 교류와 소통의 장, 신한대학교 <2024 유학생의 밤> 성료

역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국제화 비전 선보여

<이채연 기자>



지난 12월 20일(금) 은혜관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 유학생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학생의 밤>은 신한대에 어학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전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2017년부터 매년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단합과 소통의 장이다. 이번 <2024년 유학생의 밤> 행사는 풍성한 경품과 상금, 디너 뷔페와 레크리에이션, 장기 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5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하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2024년 유학생의 밤> 행사는 사전 행사와 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본 행사는 3부로 나누어 퍼레이드와 레크리에이션, 장기 자랑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행사로 진행된 국가별 음식 경연 대회에서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카자흐스탄 총 다섯 팀이 참여하여 약 40종류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경연 대회 참가자들이 선보인 국가별 특색이 담긴 음식들로,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자국과 타국의 음식을 맛본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국가별로 자국의 국기를 들며, 전통의상을 입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퍼레이드와 함께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화려하게 시작한 1부에서는 내외 귀빈들의 축사가 있었다.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1부에서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국기를 든 학생들이 자리를 꽉 채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신한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웅장하게 1부를 마치며, 행사의 분위기 역시 달아올랐다.

이번 <2024년 유학생의 밤> 행사에는 강성종 총장, 이채락 부총장, 이대성 국제처장, 동양대학교 관계자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은 “앞으로 더욱 선진적인 유학생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글로벌 우수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준비된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고 마음껏 재능을 발산하고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게임, 경품 추첨이 있었다.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학생들은 높은 몰입도와 함께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뜨거웠던 2부의 분위기에 이어 3부의 개인, 팀별 장기 자랑으로 열기가 정점에 다다랐다. 장기 자랑에 참여한 21팀의 학생들은 각각 댄스와 노래, 악기 연주, 무술 등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며 행사를 빛내 주었다.

신한대학교는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업·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교류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유학생의 밤>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신한대학교의 행보가 주목된다.

모든 것에 치열하게 반응했던 시기, '파수꾼'

모든 것이 서툴렀던 그때의 우리들

〈김규리 수습기자〉



“처음부터 잘못된 거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2011년 개봉한 윤성현 감독의 독립영화 <파수꾼>은 친구들과의 우정 사이, 섬세한 감정들을 보여준다. <파수꾼>은 기태(이제훈), 희준(박정민), 동윤(서준영), 세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은 소통의 문제를 견잡을 수 없이 빠르고 거세게 퍼지는 10대의 혼들리고 불안정한 상황을 담아냈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이라는 소재만 본다면 친구 간의 위계질서,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의 요소에 영화를 어둡고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재생한 순간부터 고요한 장면들 속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순간들을 배치해 복잡미묘한 감정선을 따라오게 만든다.

<파수꾼>은 전반적으로 ‘흑백논리’를 부정한다. 영화는 기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해답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기태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태는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친구들 위에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원하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가장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피해자인 인물. 영화는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음을, 상반되는 두 개념의 의미를 구분하는 경계를 흐리는 듯 나타낸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동윤과 기태 사이 크고 작은 오해가 쌓이며, 크게 상처받은 동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기태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한다. 그동안 위태롭게 버티며 애써 곳곳이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기태의 표정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한척했지만, 그 속은 여리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며, 친구들에게 상

처를 주었던 기태. 기태가 희준, 동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작은 불씨가 커다란 화재로 번지는 듯한 과정에 보는 관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고 솔직했으면 하는 바람이 마치 그때의 우리에게 힘과 우정 사이에 방황했던 시기를 돌아보게 한다.

영화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야구공’에 대한 구상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영화 속 기태가 가장 아꼈던 물건이라고 설명되는 야구공은 표현이 서툴렀던 기태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사물로서 작용한다. 기태가 죽기 전 그토록 아꼈던 야구공을 희준에게 전달하고, 희준은 동윤에게 전달하며, 야구공 속 담긴 기태의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희준과 동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단으로 작동한 것이다. 동시에 야구공은 세 사람 모두 함께했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대변하듯, 이들의 우정을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어 영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영화는 인물들의 섬세한 표정, 행동에 집중하며 10대의 학교생활 중 누구나 한 번씩 경험했지만,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삶에서 ‘친구’의 존재가 가장 컸던 시기, 윤성현 감독은 그때의 평온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시기를 적절하게 드러낸다. 그러한 점에서 개봉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간을 초월해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있는 이유처럼 보인다. 또한 영화는 친구들 간의 ‘우정’ 속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시점을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한 인물에게 쏠리지 않고 단편적인 모습이라도 관객이 인물의 상황에 투영될 수 있게끔 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한편에는 기태, 희준, 동윤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파수꾼>은 그 시절 미세한 관계 맺음의 어려움을 담고 있어 고요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 빈 곳을 채우는 듯 긴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99%의 거짓과 1%의 진실, 영화 '댓글부대'

모든 것이 서투르던 그때의 우리들

<이채연 수습기자>

만약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주변에 공존하고 있는 거짓과 진실을 그 누구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영화 <댓글부대>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속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되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영화를 뛰어넘어,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찬찬히 되짚도록 만드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다.

영화 <댓글부대>는 크게 '임상진 기자(손석구)'와 '짱뽕킹(김성철), 찻타캣(김동휘), 팽택(홍경)'으로 구성된 '팀 알렘'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대기업 '만전'의 비리 기사가 오보로 판명돼 정직당한 임상진 기자는 어느 날, 자기 기사가 거짓이 아니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된다. 오보 기사가 아니며, 대기업 '만전'의 댓글 여론조작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 댓글부대의 일원, 찻타캣의 제보로부터 이들의 이야기는 크게 두 시점으로 나뉘어 번갈아 제시된다.

이야기는 임상진 기자가 오보 기사로 사람을 죽인 기자라는 오명을 벗고 댓글부대의 실체를 밝히어 복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축으로 진행된다. 임상진 기자가 찻타캣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팀 알렘이 겪은 이야기를 찻타캣과 팀 알렘의 시점으로 전달하기에, 관객은 팀 알렘의 입장과 이를 전해 듣는 임상진 기자의 입장에 고스란히 몰입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어디까지 믿으세요?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가
- 영화 <댓글부대> 포스터 -

영화를 보고 난 후, 영화관에선 관객들이 웅성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많은 질문으로 마무리된 영화의 결말은 관객들에게 의심할 거리를 던져주며,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영화를 보면 크게 거짓과 진실을 의심하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처음에는 찻타캣의 제보가 진실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댓글부대로서 일해왔다는 찻타캣이 전하는 제보 내용을 과연 다 믿을 수 있을까? 찻타캣의 제보를 팀 알렘의 시점으로 전해 들으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조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파헤치기 어려워지는 첫 번째 관문이다.

다음으로는 찻타캣과 팀 알렘이 실재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임상진 기자에게 제보하러 온 사람은 찻타캣, 단 한 명. 영화를 보다 보면, 총 세 명으로 이루어진 팀 알렘 멤버 중 나머지 두 명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혹은 이들이 전부 실재하는 인물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명과 나이, 사는 곳 등 확실한 정보 없이 찻타캣, 짱뽕킹, 팽택 같은 익명의 이름만을 남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가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두 번째 물음표이다.

마지막으로, 임상진 기자의 입장에서 전하는 이 영화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임상진 기자와 팀 알렘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지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내레이션과 함께 임상진 기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임상진 기자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이 영화 <댓글부대>를 본 관객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영화의 마무리 부분은 댓글부대를 취재한 임상진 기자의 폭로 글로써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임상진이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부대 취재 글은 과연 진실인가?',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가?' 같이 임상진 기자와 이 영화의 이야기 전반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관객이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고, 이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매력적인 영화다.

커뮤니티, 인터넷 댓글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떠나서 언론, 기자들이 하는 말들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것은 또 진실이냐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또 이 영화는 진짜가 맞느냐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 저는 '대중들이 결국에는 답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고, 계속 생각을 곱씹으면서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화 <댓글부대> 무대인사(24.03.31.) 중 안국진 감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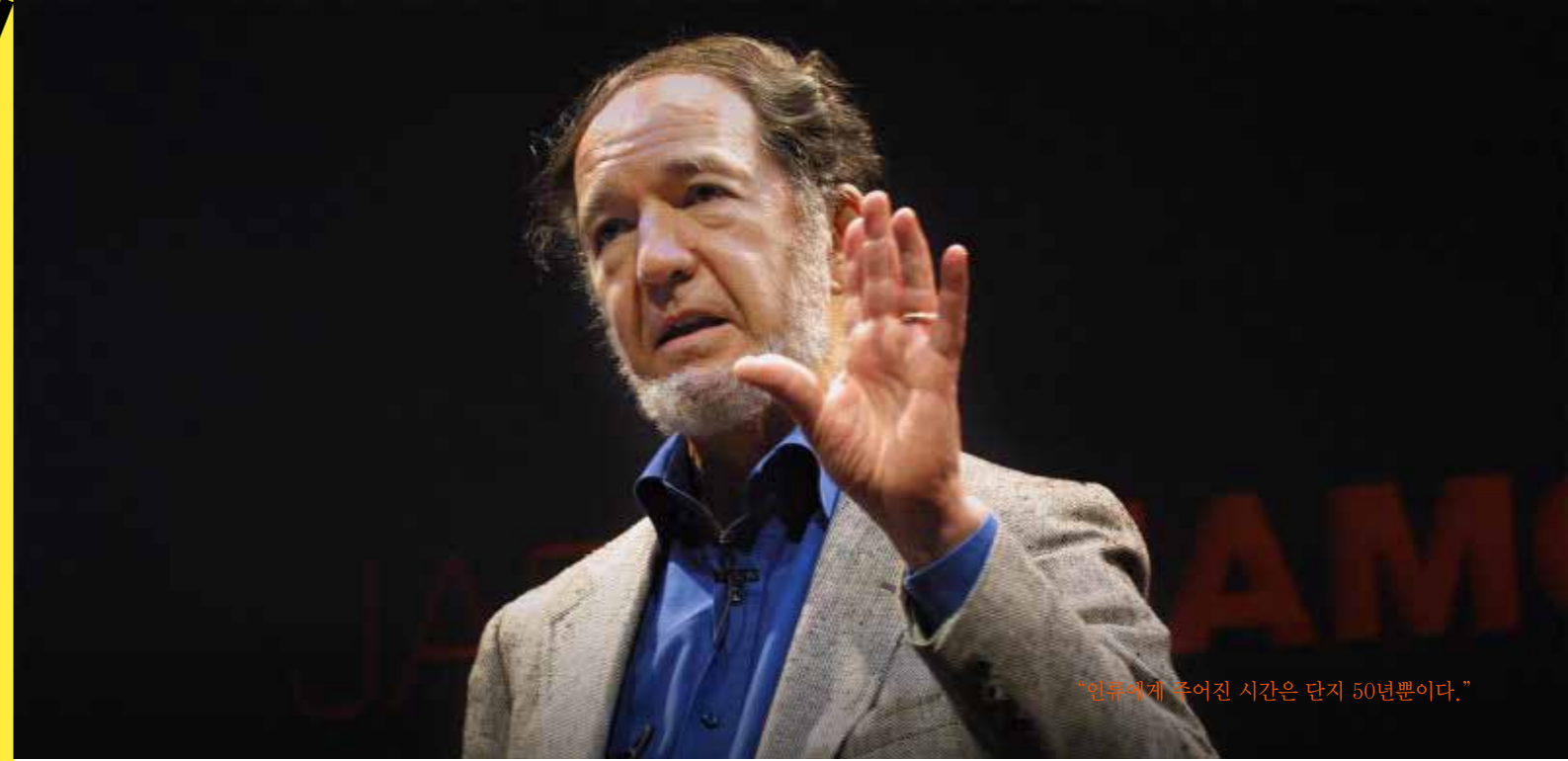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이 더 효과적이라는 영화 속 대사가 있다.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기 쉬운 오늘날, 때로는 대중에게 진실과 거짓의 사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럴수록 더 자극적이고 입에 오르기 쉬운 것들이 기삿거리가 되곤 한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유혹적인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평소 생각하는 것이나 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 자신이 수많은 정보에 휩쓸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 것이다. 이 외에도 예측이 어려운 전개와 함께 깊은 물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화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인터넷에서 본 글 어디까지 믿으세요?"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나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채원 수습기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지 50년뿐이다.”

우리는 분기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통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각국의 경제 상태를 확인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순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라는 질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지리학적 접근으로 문명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낸 <총, 군, 쇠>를 저술한 작가이다. 이번에 그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세계, 그리고 이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가?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언제나 위기는 닥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떤 유형의 위험은 습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어떤 유형의 위험은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한다. 그 중 특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끊임 없이 반복하지만 이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이 무척 낮을 경우에는 그 위험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띤다. 저자는 이에 대해 건설적 편집증(constructive paranoia), 즉 터무니없는 과민 반응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 조심스런 자세를 지녀야 하고, 개인이든 국가든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로 국가 간의 불평등, 환경자원의 부족과 환경훼손 심화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자원, 기후변화를 들고 있다. 저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독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자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51퍼센트이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49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독자는 이 책의 질문들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우리의 삶과 연관 지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 현재 부유한 국가의 일인당 평균 자원 소모율은 가난한 국가의 일인당 자원 소모율보다 32배가 높다. 세계화된 환경에서 이런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테러가 빈발하고 불법 이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테러리즘의 궁극적인 원인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비참한 생활 조건이다. 이런 테러리스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대개의 나라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지만, 희망이 없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절박한 나머지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나라가 없는 날까지 전 세계의 생활 조건을 향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지구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소행성이라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 소행성의 돌진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거의 다 알고 있을지 모른다. 단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조국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답변해야 할 차례이지 않을까?

장수 캐릭터의 발자취를 따라 동심을 되새겨보다, Hello Kitty 50주년 특별 기념관

'헬로키티, 산리오캐릭터즈와의 추억여행'

〈김우엽 수습기자〉

HELLO KITTY 50th Anniversary



© 2024 SANRIO CO., LTD. (App No. K3C2400329)



"함께 걸어온, 그리고 함께 걸어갈 친구"



HELLO KITTY 50th Anniversary

단순하게 생긴 캐릭터 하나가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과 재미를 담당하던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 재밌게 보았던 캐릭터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곤 한다. 가끔은 복잡한 정책보다 이렇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단순한 캐릭터가 각 세대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2024년 4월 1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세대를 거스르는 캐릭터 헬로키티의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부제 타이틀은 '산리오캐릭터즈와의 여행'으로 헬로키티만의 전시회가 아닌 지금까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한다.

산리오 회사의 슬로건은 '작은 선물로 큰 웃음'이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캐릭터의 성격이나 특징을 만들지만 그중에서도 '귀여움'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긴 역사를 가진 만큼 약 60년간 450여 가지의 캐릭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중에 한국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열두 캐릭터가 등장했다.

전시회를 장식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입구에서는 3미터에 이르는 헬로키티가 입장을 반겨준다. 전시회 내부에서는 헬로키티뿐만 아니라 대표 캐릭터 시나모롤, 쿠로미, 포차코, 쇼바이락 등 헬로키티에 등장한 캐릭터들과 더불어 별개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들도 전시되었다. 물론 핵심은 헬로키티기 때문에 전시회 중간에 4미터에 가까운 헬로키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추가로 산리오 소개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관과 산리오 캐릭터 그리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틀어주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추억이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역시 전시회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전시회는 경험존과 포토존, 산리오 회사의 등장 역사와 캐릭터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역대 출시된 굿즈 상품들을 전시하여 어떤 캐릭터가 최초로 만들어졌는지, 각 캐릭터가 가진 개성과 고유성은 무엇인지 등 캐릭터에 담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는 어렸을 적 특별한 생각 없이 감상했던 작은 캐릭터에 대해 세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회 밖에는 지금까지 본 캐릭터들의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이나 접시, 컵 등 다채로운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많은 캐릭터들이 한 버스를 타고 우리에게 와주어서 고맙다며 손을 흔드는 간판이 전시회의 아련함을 한층 더해준다.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들을 위한 전시회는 자주 오지 않는 경험인 것은 확실하기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자식 혹은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추억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추억으로 인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신한대학교, 한·중 학술 및 문화교류 방문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지역사회복지연구소(소장 조성심 교수)에서는 학술 및 문화교류 방문단을 구성하여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절강재경대학동방학원 및 광동성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광동혁신과학기술직업대학, 광주소프트웨어대학, 광주과학기술직업기술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번 절강재경대학동방학원은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며,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제1회 동아시아지역(한·중)사회복지 및 사회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광동성 광주의 3개 대학(광동혁신과학기술직업대학, 광주소프트웨어대학, 광주과학기술직업기술대학)에 각각 방문하여 중국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였다. 방문단의 단장을 맡은 신한대학교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조성심 교수는 “신한대학교의 재강절강대학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지소는 우리 대학이 해외에서 설치되는 최초의 해외 연구소로서 의미가 매우 크며, 이 연구소를 통해 양 대학의 학술문화·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하였다.



<김규리 기자>



신한대학교, '2023 신산업분야 지식재산융합인재 양성사업' 연차평가 'S등급' 달성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최근 교육부와 특허청이 협업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2023년도 연차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32개 대학, 50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S등급)를 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신한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의 융합 및 실무 교육을 통해 IP특성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경기도 기업 문제해결을 위해 신한대학교가 IP교육과 연구활동(R&D)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김규리 기자>

신한대학교 CLEP 프로그램, 2024년 상반기 CLEP 수료식 개최

신한대학교 영어회화 프로그램 수료식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위치한 210 아전포병여단 본부에서 가졌다. 금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8주간 14명의 미군 및 카투사가 자원봉사 강사로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수료식에 참석한 신한대학교 국제처 이대성 처장은 “금년에도 수료식을 학생들의 방문에의 기대가 큰 캠프 케이시에서 개최하고 CLEP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미 2사단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CLEP 프로그램은 미 2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문화를 배우고 싶거나 유학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영어회화 능력을 쌓고자 하는 재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80% 이상 출석 시미 2사단 210 아전포병 여단장 명의의 영문수료증과 함께 교내 마이리지 장학 포인트 100점이 부여된다.



<김우엽 기자>

신한대학교, 2024년 '로컬문제해결 IP-C&D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신산업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지역 청년, 교내 재학생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로컬문제해결 IP-C&D(Connect & Development)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2024년 05월 10일(금) ~ 11일(토), 2일간 호텔뉴브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

현하기 위한 교육과 멘토링으로 이루어졌으며 링크드인코리아 파트너, 나스타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의 특강을 기반으로,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업계 최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특유의 이해와 P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 청년,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유학생 등 총 70명이 참여하여 P7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연계, P 출원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유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아이디어 실용화와 창업 사업화를 지원 할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우엽 기자>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포올(ForAll)팀, 제7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쾌거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산학협력 마이크로스톤 프로젝트 '포올(ForAll)팀'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융합학회에서 주관하고 실시한 제7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낸 포올팀은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최한용 교수의 지도 아래 유원근, 허성연, 조호연, 박효미, 허동빈 학생으로 구성됐다. 해당 팀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생생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앱인 '아동 정신 건강을 위한 AI 색채 미술 심리치료 앱'을 개발·발표해 개별 아동의 심리 상태와 필요에 따른 치료적 접근을 구체화했다. 한편, 신한대학교는 지난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P가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되어 SW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SW기초, 전공 및 융합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SW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 중이다.



<신혜미 기자>



신한대학교 '2024년 앱개발 경진대회' 성료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5월 16일(목)부터 7월 10일(수)까지 2024년 앱개발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주최한 앱개발 경진대회는 신한대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활용 가능앱 설계의 지정 주제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앱을 설계하는 자율 주제로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대상을 차지한 집현전사생들팀(소프트웨어융합학과 유원근, 이승렬)은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단어 공부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용 앱과 아이폰용 앱으로 제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최한용 단장은 "이번 앱개발 경진대회는 SW교육 동기부여의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번 2024년 앱개발 경진대회는 신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SW기초교육사업으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ИTP)의 SW중심대학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신해미 기자>

신한대학교 보건대학 치위생학과, 2024년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생학술포스터 부문 '금, 은, 동, 장려상' 수상 쾌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보건대학 치위생학과(학과장 윤미숙)는 지난 19일 진행된 "2024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학생학술포스터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1팀, 은상 3팀, 동상 1팀, 장려상 3팀으로 8개의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오스 템 임플란트 마극 신사옥에서 진행된 2024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학생학술포스터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구두 발표를 진행한 3학년 양호현 학생은 "학생학술 포스터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상이라는 큰 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더욱더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팀원들과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열정을 잃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한대학교 보건대학 치위생학과는 신한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먼저는 직업인으로서의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산업사회의 임상 실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과 병원경영 및 관리능력과 더불어 학문적 능력까지 갖춘 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을 목표로 5명의 교수진(윤미숙, 이정희, 정성균, 김수경, 조한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채원 기자>



신한대, 2024 국제개발협력 해외현장활동 성공적 마무리

2024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신한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해외현장활동이 성료됐다. 이번 해외 현장 활동은 캄보디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ICT국제개발협력 수업을 수강한 학생 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한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프놈펜왕립대학 방문 및 ODA 사업지 현장 견학, KOICA 지역사무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같이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이해하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책임자인 류현욱 교수는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며, 이번 활동은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현장 활동을 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원 기자>

신한대학교, 제4회 2024년 참신한 김장나눔 "愛" 품들이 행사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는 2024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참신한 김장나눔" "愛" 품들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신한대학교 로고스봉사단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교직원 전문재능 '농고 동락' 봉사단과 교직원, 대학생, 해외유학생, 지역사회 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강성중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인 김장을 체험하고 온정 나눔을 배울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에 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로 신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채원 기자>

신한대-의정부시, 지속가능 도시재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10월 7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및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골목상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실행을 위한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청 2층 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과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을 비롯하여 여러 관·학 관계자들이 자리하였다. 김동근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민과 함께 우리 시와 신한대학교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성중 총장은 "우리 대학의 여러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과와 연계하여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가 인적 교류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채원 기자>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교,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선욱	김홍매	이재은	조우택	(사)아이들과미래재단	아이씨티웨이(주)
고태순	나성란	이정아	조한아	(주)다비치인경제인	아이앤지과외원
공예진	남궁유정	이정원	조형준	(주)다일	에이씨티(주)
권영길	남궁혁	이종현	진선범	(주)덴타움	오스텔 임플란트
권영일	이우현	이주환	차종호	(주)동춘	우성치킨
김광수	민원표	이찬주	최상진	(주)서회건설	유원엔지니어링(주)
김광환	민철기	이홍환	최성숙	(주)스타비전	유행통국제무역주식회사
김규형	박경희	이한범	최에스더	(주)올포랜드	의료법인 시과나무의료재단
김규호	박광용	이헌비	최용석	(주)우리강산시스템	의정축산식당
김기순	박병철	이현정	최용수	(주)진술건설	재단법인보건장학회
김기열	박희호	이혜연	최정욱	(주)행복한 사람들	제이콘텐트컴퍼니
김나혜	박성모	이혜연	표상신	ASU	주식회사 메이크업매직
김남중	박소경	이효진	한경희	DK메디칼솔루션(주)	주식회사 무신사
김명준	박주원	임승희	한술	GC KOREA	주식회사 유피소프트
김명희	박진우	임원선	한수범	NYAMDORJ ODGEREL	주식회사 지오스토리
김문성	박현철	임종기	한승원	경기도치과기공사회	주영인터내셔널(주)
김민정	배시애	임환솔	한태희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지점	치기공학과 동문회
김보현	변희진	장문태	함재영	기독교대한감리회광림교회	캐자-2023예술심리치료학과
김상현	서수연	장은주	허준용	넥스트 코리아	원우회
김선명	서해경	전법구	홍경욱	도양	한방유비스 주식회사
김선아	손형민	전영상	홍동희	동인빌딩	해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소민	신경환	전영주	홍수희	디디인터내셔널트레이딩주식	호원사마을금고
김수인	안진예	전유찬	황정호	회사	다경모드
김순남	안태영	전현주	황희숙	미소인	동성계약(주)
김수옥	오이균	정선도		범무법인 태진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김승욱	윤미숙	정세훈		사단법인 위드다문화	
김양훈	윤종진	정우용		삼인제어시스템(주)	
김육자	이경은	정지나		서울녹각삼계탕	
김정현	이광규	정진경		소상공인	
김정호	이광수	정태경		스타치과기공소	
김정훈	이규태	정한별		신원이앤지(주)	
김준석	이금숙	조규봉		신한대 대학원 제30기 글로벌	
김지명	이석재	조상현		AMP(피주) 원우회	
김지윤	이세민	조성운		신한대학교 골프동호회	
김진경	이승모	조성재		신한외식23기	
김현우	이영기	조영숙		써플라이 의정부점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인(비동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인적사항	연락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E-mail			
	우편물지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기부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도	<input type="checkbox"/>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수 등 사용자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기관)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본인(기관)과 특정학생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정탁금지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	
기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교직원급여이체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1~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

2025. 02 / 205호

편집후기

김우엽 기자

기사 작성이라는 과정은 나에게 크게 다가와 걱정을 안겨주었지만, 막상 취재를 나가고 같은 부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실시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사 작성이라는 걱정거리를 즐기는 나를 발견했다. 좋은 경험이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현지 편집장

신문사에 들어 온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있다. 짧고 굵게 지나온 날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나의 대학 생활에 큰 비중으로 차지한 것은 신문사였다.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진 작은 집단이지만, 이곳에서 다양한 글과 수많은 생각을 접하면서 나의 가치관 또한 풍부해진 듯하다.

205호를 마무리하며 부족했던 나를 따라준 부원들, 무사히 편집장으로서 끝을 맺을 수 있게 도와준 전 김민성 편집장, 이민주 편집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규리 기자

신문사와 함께한 1년은 학교생활에서 잊지 못할 보람찬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신문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더욱 뿌듯하게 만들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었다. 그때마다 함께해 준 편집장님과 기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따뜻함을 잊지 않고 다음 호를 맞이하며, 더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양채원 기자

신문사에 들어오기 전 글이나 기사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던 터라 첫 기사를 쓸 때 걱정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기자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비록 서툴지만, 완성된 기사를 봤을 때는 뿌듯함만이 남아있었다. 물론 더 많은 취재를 가지지 못한 것과 더 나은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들지만 계속 신문사를 이어 나가며 이런 아쉬웠던 점을 없애나가고 싶다. 대학생으로서의 첫 1년을 신문사에서 값진 경험을 쌓고 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1학년 생활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민주 편집장

여전히 변화의 시작 앞에 서는 일은 두렵다. 신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편집장이 되었을 때도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약 3년 간의 활동을 거치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건, 함께라면 두려움을 게 없다는 것.

학생 기자로서도, 편집장으로서도 함께하는 다른 기자들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이 많다. 이 자리를 빌어 205호를 완성하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신혜미 기자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20살 새내기 시절, 부푼 꿈을 안고 신문에 입단했다. 서툴지만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어떻게 하면 더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거쳐오며 매 순간 후회 없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했다.

2년이란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대학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앞장서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글에 경험을 녹이면서 나의 대학 생활 역시 회고해 보며 기록해 볼 수 있는 값진 순간들이었다. 앞으로 새겨질 우리 대학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신문사’의 추후 여정을 응원하며, 내가 써내려 온 신한대학교의 발자취가 책자 한 페이지에 고이 간직되기를 바란다.

이채연 기자

첫 취재 그리고 첫 기사, 처음이 많았던 신문사 기자로서의 경험. 서투르고 부족한 점투성이었지만, 막막할 때마다 도와준 신문사 부원들과 좋은 선배들 덕분에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바라던 대로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니, 올해는 학교생활을 알차게 한 기분이다. 처음이라는 명목 아래 배워나가기 바빴던, 1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더 속해지길 소망해 본다.

정현지 기자

벌써 들어온 지 3학기가 지났다. 졸업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는데, 눈 깜짝할 새에 전공도, 기자도 졸업이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채 졸업하지만, 기사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을 것이다. 3학기 동안 기사를 쓰며 많은 도움을 준 편집장님과 신문사 기자들,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Impossible » I'mpossible

대학은 형식이 아닌 내용이 지배하는 곳이며,
정답을 의심하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념과 의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곳이고,
무엇보다 대학은 위기를 용기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속가능 캠퍼스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젊고 강한 대학! **+** 신한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11.45:1 역대최고** 지원자 달성 · 2024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전국 2위**

제1캠퍼스: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제2캠퍼스:** 경기도 동두천시 벌마들로 40번길 30 **입학상담:** 031)870-3211~7